***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table>
<tr><th colspan="3">For 2025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본교재)</th></tr>
<tr><th>위치</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1권 70페이지 6번 문장 세 번째 화살표 마지막 줄
(3쇄부터 반영)</td><td>‘수촉 속도도 빠르겠구나,’와 같은~</td><td>‘수축 속도도 빠르겠구나,’와 같은~</td></tr>
<tr><td>1권 73페이지 6번째 화살표 마지막 문장
(3쇄부터 반영)</td><td>~면에서 닯았다는~</td><td>~면에서 닮았다는~</td></tr>
<tr><td>2권 38페이지 마지막 두 문단
(2쇄부터 반영)</td><td>~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td><td>~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For 2025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해설지)</th></tr>
<tr><th>위치</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1권 14페이지 3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td><td><table><tr><th>명시적 근거</th><th>6문단 1번 문장</th></tr><tr><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td>사실성은 없다며.</td></tr><tr><td>해설</td><td>애초에 사실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곰브리치와 굿맨’이 사실성을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죠.</td></tr></table></td><td><table><tr><th>명시적 근거</th><th>6문단 1번 문장</th></tr><tr><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td>사실성이랑 유파랑 무슨 상관이야.</td></tr><tr><td>해설</td><td>곰브리치와 굿맨은 객관적인 ‘사실성’이라는 건 없고, ‘사실성’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 체계 · 배경 지식과 같은 재현 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유파에서 어떤 재현 체계를 사용하는지가 아닌, 유파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재현 체계 자체가 ‘사실성’을 결정한다는 것이 곰브리치와 굿맨의 주장이기에 이와 같은 비판을 하지는 않겠죠.</td></tr></table></td></tr>
<tr><td>1권 17페이지 하이라이트 문장
(2쇄부터 반영)</td><td>①사회 이론은~</td><td>②사회 이론은~</td></tr>
<tr><td>1권 49페이지 23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3문단
(3쇄부터 반영)</td><td>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것도 아닌 데다가, DNA가 아닌 ‘RNA’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 ㉡과 달리’라는 말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td><td>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특정 숙주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특정’ 세포에만 존재할 뿐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은 ㉡과 달리’라는 말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td></tr>
<tr><td>1권 63페이지 2문단 ①~③ 문장 해설 2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3쇄부터 반영)</td><td>그리고 이러한 ‘생성량’은 ‘소모량(=발산량)’과 같기 때문에,</td><td>그리고 이러한 ‘생성량’은 ‘발산량’과 같기 때문에,</td></tr>
<tr><td>1권 73페이지 4문단 (1) ① 문장 해설 2문단
(3쇄부터 반영)</td><td>여기서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과거의 나’로, ‘미토콘드리아’가 ‘현재의 나’로 재진술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인데, 사실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이니까요.</td><td>여기서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원생미토콘드리아’가 ‘나’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나의 후손’으로 재진술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인데 ‘하나의 개체’에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td></tr>
<tr><td>1권 75페이지 6문단 (2) 문장 해설
(2쇄부터 반영)</td><td>③ #카테고리 나누기</td><td>③~⑥ #카테고리 나누기</td></tr>
<tr><td>1권 85페이지 하이라이트 문장
(3쇄부터 반영)</td><td>③복잡한 문제를~</td><td>①복잡한 문제를~</td></tr>
<tr><td>1권 94페이지 44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2문단 네 번째 줄
(3쇄부터 반영)</td><td>내용이 선지에 없는~</td><td>내용이 지문에 없는~</td></tr>
</table>

<table>
<tr><td>1권 111페이지 3문단 ④~⑤ 문장 해설 첫 줄
(3쇄부터 반영)</td><td>’보험금 총액‘이 ’보험료 청액‘보다 커지니까~</td><td>’보험금 총액‘이 ’보험료 총액‘보다 커지니까~</td></tr>
<tr><td>1권 121페이지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3쇄부터 반영)</td><td>머릿속엔 ‘수입제반 비용=이윤’이라는~</td><td>머릿속엔 ‘수입-제반 비용=이윤’이라는~</td></tr>
<tr><td>1권 138페이지 22번 문제 3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td><td>합성은 마지막은 하는 것이지.</td><td>합성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td></tr>
<tr><td>1권 155페이지 3문단 3번 문장 밑에서 네 번째 줄
(3쇄부터 반영)</td><td>나아가 1문단의 ‘전통적인 교과서적 견해’는~</td><td>나아가 1문단의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는~</td></tr>
<tr><td>1권 158페이지 32번 문제 정답률 표
(3쇄부터 반영)</td><td><table><tr><td>13%</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r><td>선택률(예상)</td><td>13%</td><td>18%</td><td>21%</td><td>32%</td><td>16%</td></tr></table></td><td><table><tr><td>선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r><td>선택률(예상)</td><td>13%</td><td>18%</td><td>21%</td><td>32%</td><td>16%</td></tr></table></td></tr>
<tr><td>1권 269페이지 16번 문제 ㉮ 해설 밑에서 두 번째 줄
(3쇄부터 반영)</td><td>‘의식과 수적 역할’이 되겠네요.</td><td>‘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되겠네요.</td></tr>
<tr><td>2권 107페이지 왼쪽 단 1문단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td><td>상대적으로 ‘유체’의 밀도 그렇게까지~</td><td>상대적으로 ‘유체’의 밀도가 그렇게까지~</td></tr>
</table>

For 2025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58페이지 Day 2 [37] 2015.09A 빠른 정답 (2쇄부터 반영)	①	②

For 2025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28페이지 (가) 지문 '실전적 지문 독해' 세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1권 66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나아가, < > 표시한 부분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죠?	나아가, < > 표시한 부분에서는 독자를 언급하며 서술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1권 151페이지 30번 문제 5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한 게 아니었지.	인과 관계는 핵심이 아니지.
1권 252페이지 Day 2 [37] 2015.09A 빠른 정답 (2쇄부터 반영)	①	②
2권 11페이지 88번 문제 1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	[A]에 대조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둘 다 대조가 있는데?
2권 26페이지 94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문단~3문단 (2쇄부터 반영)	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은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구체화'되었는지입니다.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은 '뫼'와 관련된 것이에요. 또한 〈제6수〉에서 제시된 '감각적 표현'은 '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됴하ᄒᆞ노라'가 '강산'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죠? '좋아함'을 구체화하면 '강산'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도 선지에서 묻는 것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선지였네요. 물론, '강산' 자체는 실제 강과 산이라기보다는 '자연'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해결한다면 이 풀이가 더 적절할 거예요. 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올해 수능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내용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은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구체화'되었는지입니다.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은 '뫼'와 관련된 것이에요. '뫼'를 바라보니 정말 즐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6수>에서 화자가 보이는 정서적 반응은 '님군'에 대한 감사이지, '강산'이라는 감각적 표현에 대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제6수>에 강산이 좋다는 반응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그저 '님군 은혜'에 대한 예찬을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강산'과 같은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6수>에서 화자가 '강산'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정서적 반응은 '감사함'이라는, '즐거움'의 구체적 표현이 아닌 아예 다른 방향의 정서적 반응이니까요. 물론, '강산' 자체는 실제 강과 산이라기보다는 '자연'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제3수>와 <제6수> 속 화자의 내면세계, 즉 정서적 반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죠? 늘 같은 것만 묻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